# 계룡대 홍제사 낙성…무기 녹여 본존불 조성

**4월 23일, 본존불 점안·낙성법회**
**대웅보전 편액 종정 성파 스님 친필**
**진우 스님 "마음 평안 전진 기지"**
**법원 스님 "전쟁 업, 자비 전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4월 23일 계룡대 홍제사 대웅보전에서 낙성법회 및 본존불 봉불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대표자들이 대웅보전 앞에서 테이프를 커팅하는 모습.
사진 제공=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 계룡대에 군불교 숙원사업이었던 홍제사 건립불사가 마침내 마무리되며 위용을 드러냈다. 전쟁 도구를 녹여 조성한 본존불에 '전쟁의 업을 자비로 전환'하는 상징을 담은 홍제사는 50년 군 포교의 염원을 결실로 맺으며 장병 신행의 중심이자 호국불교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을 알렸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4월 23일 계룡대 홍제사 대웅보전에서 낙성법회 및 본존불 봉불식을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육·해·공군 참모총장, 군승과 장병, 불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해 호국불교 도량의 원만한 회향을 함께 축하했다.

홍제사는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 호국불교 총본산이다. 2020년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주요 사업으로 군 장병들의 신행과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염원 속에서 창건 불사가 시작됐다. 2022년 대웅보전을 비롯한 교육관 불사를 마쳤다. 이후 본존불 조성을 발원하며 불사를 이어온 끝에 이날 봉불식을 통해 도량의 마지막 불사가 원만히 회향됐다.

특히 이날 봉안된 본존불은 육군 전차, 해군 군함, 공군 전투기 등 실제 무기 부품을 녹여 조성한 철불로 전쟁의 도구를 자비와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사에 전례 없는 의미를 지닌다. 서칠교 불모가 2년에 걸쳐 완성했으며 복장으로는 나전칠기로 제작된 후령통과 인경 다라니, 연기문과 동참자 명단, 군승 40년사·50년사, 고려·조선시대 만다라와 다라니류, 육·해·공군 주력 무기 축소 모형, 그리고 전국 군사찰 불자들의 발원문이 함께 납입됐다.

대웅보전 편액은 조계종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가 쓴 법필로, 호국불교 중심 도량으로서의 상징성을 더했다.

법원 스님은 봉행사에서 "무기를 녹여 부처님을 조성한 것은 전쟁의 업을 자비의 원력으로 전환하는 살아있는 수행"이라며 "홍제사가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귀의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어에서 장병 불자들의 수행과 신심을 격려하며 부처님 자비광명이 한반도 평화와 국태민안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했다. 특히 홍제사가 장병들이 마음을 편안히 하고 수행할 수 있는 도량으로 자리잡길 염원했다.

법문에 이어 진우 스님은 법원 스님에게 군불교 진흥기금 5000만원을 전달하며 군포교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불사 화주에 앞장선 이미숙 불자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장', 불상을 조성한 서칠교 작가에게 '군종특별교구장 감사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조선代 부불전·요사채들 보물 지정된다

**국가유산청, 지정예고 공고**
**조선 중후기 전각 10건 대상**



조선 중후기에 조성된 부불전과 요사채들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가평 현등사 극락전〈사진〉 등 부불전 6건과 금산 영천암 무량수각 등 요사채 4건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부불전은 부처·보살을 모신 중심 불전과 이격되어 건립된 법당으로 나한전, 영산전, 원통전, 비로전 등이 있다. 요사채는 스님들이 거주하는 전각을 의미한다. 그간 부불전과 요사채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았지만 불전과 석불, 석탑 등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불교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부불전과 요사채에 대한 가치조사와 발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10건의 부불전·요사채를 보물로 지정 예고하게 됐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부불전은 △가평 현등사 극락전 △괴산 각연사 비로전 △고창 선운사 영산전 △순천 선암사 원통전 △순천 송광사 응진당 △경주 기림사 응진전이다. 지정 예고된 요사채로는 △금산 영천암 무량수각 △청양 장곡사 설선당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익산 숭림사 정혜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된 부불전과 요사채는 조선 중후기에 걸쳐 건립 및 중건된 것"이라며 "지정 예고된 부불전은 조선 후기 전통목조건축의 양식적 특징과 기법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고, 요사채 역시 사찰의 수행 및 생활공간으로 건립돼 시대에 따른 생활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불전·요사채 10건의 지정 예고에 따라 향후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나아가 지역 문화융성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한 가평 현등사 극락전 등 10건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 "사찰림 재선충병, 실시간 대응으로 '골든타임' 사수해야"

**사찰림연구소 4월 28일 토론회**
**한혜림 과장 "예찰 대응 핵심"**

사찰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육안 예찰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과학적 실시간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대표이사 원명 스님)는 4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찰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황과 개선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 나선 한혜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생태 특성과 과학적 예찰 및 방제 기술' 주제 토론문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단순한 산림 피해를 넘어 불교 문화유산의 경관과 수행 환경을 위협하는 만큼 사찰림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첨단 방제 전략으로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혜림 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치명률과 전파력이 매우 높은 산림재난"으로 규정했다. 때문에 관리 이전에 방제가 핵심 활동으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게 한 과장의 설명이다.

한혜림 과장은 "단 한 그루의 소실이 단일 유산의 상실로 이어진다"며 "사후 복구보다는 생태 특성에 기반해 확산 고리를 끊는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Early Detection, Early Control)'가 방제 성패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예찰이 활발하고 피해목 정보가 잘 관리된 지역은 방제 성과가 높다고 말한 한 과장은 지상·드론·항공·위성 영상 등 다양한 예찰 방식과 함께 AI 딥러닝 기반 항공영상 분석과 초분광 센서를 활용한 조기 감염목 탐지 기술을 소개했다.



대안 중 눈길을 끈 것은 감염 초기 단계에서 육안 식별이 불가능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수액 흐름 센서(Sap Flow Sensors)'다. 나무에 부착된 디지털 센서가 수분 흐름의 이상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원격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재선충 감염 시 나타나는 수분 흡수 저해 현상을 즉각 포착해 피해목이 고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정규원 산림기술사가 '사찰의 재선충피해 현황',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이 '사찰림 소나무재선충병 재난 위기'를 주제로 발제했다.

임은호 기자

# 조동종 제13대 총무원장 지원 스님 취임

**4월 24일 추대법회 봉행**
**"소통으로 수행 가풍 진작"**



대한불교조동종 제13대 총무원장에 행묵 지원 스님〈사진〉이 취임하며 종단의 새로운 도약과 화합을 다짐했다. 조동종은 4월 24일 남양주 우리정사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및 동산양개 대선사 1157주기 헌다례재'를 봉행했다.

1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지원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묵조선 수행가풍 진작 및 교구 활성화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교육 역량 제고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투명한 행정 등 3대 운영 기조를 발표했다.

지원 스님은 "종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충분한 의논을 거쳐 공정하고 소외되는 이가 없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종단의 근간인 묵조선의 수행가풍을 진작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각 교구를 활성화해 조동종의 위세를 다시 한번 떨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스님은 2000년 서울 수락산 도선사에서 대은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조동종 총무부장, 부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우리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